

이라크 미군기지 피격 미군 포함 3명 사망 12명 부상

이라크 북부에 있는 타지(Taji) 미군기지가 로켓포 공격을 당해 미군 장병 2명을 포함해 최소 3명이 죽고 12명이 부상을 당했다.

12일 '뉴시스'가 미군 관계자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로켓포 공격을 받은 군부대 건물은 불길에 휩싸였으며 부상자 중에서 5명은 중상을 입고 다른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이라크 주둔 미군 대변인 마일스 캐긴스 대령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라크의 바그다드 북부지역인 타지(Taji)의 군 기지에 15발 이상의 소형 로켓포탄이 날아와 명중했다고 밝혔다. 그 이상의 자세한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또 다른 미군 장교는 이날 30발이 넘는 로켓포탄이 부근의 한 트럭에서 발사되었고 그 중 18발이 부대에 명중했다고 전했다.

바그다드 바로 북쪽에 있는 타지 부대는 오랜 세월동안 훈련소로 사용되었던 부대이다. 이라크 안에는 아직도 6,000여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주로 이라크 군에 대한 군사고문역과 훈련, 대테러 작전 수행을 맡고 있다.

미군 장교들은 이번 로켓포 공격을 한 주체가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대체로 카타이브 헤즈볼라나 기타 이란의 후원을 받는 시아파 무장단체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카타이브 헤즈볼라는 지난해 12월에도 키르쿠크의 한 군부대에 로켓 공격을 가해서 미군 군납업자 한 명이 사망했으며, 이 때문에 미군의 보복 공습을 당하기도 했다.

그 결과 바그다드의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관이 시위대의 공격을 받았고 미국은 올 1월 3일 보복 공격으로 가셈 솔레이마니 이라크군 사령관을 바그다드에서 공습해 살해했다. 이 때 함께 피살된 아부 마흐디 알-무한디스는 카타이브 헤즈볼라를 포함한 이라크 내의 이란 후원 무장단체의 지도자였다.

카타이브 헤즈볼라는 2009년 미국무부가 "해외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단체이다.

한편 미국은 미군기지가 로켓포 공격을 당한 지 하루 만에 보복 공습을 단행했다. 미국 국방부는 12일 "미국이 이라크에서 카타이브 헤즈볼라 시설을 겨냥해 방어적 정밀 공습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우루과이, 남미국가연합 탈퇴 남은 회원국 3개국뿐

'남미관 유럽연합(EU)'을 표방하며 야심 차게 출범했던 남미국가연합(UNASUR)이 사실상 이름만 남은 처지가 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에르네스토 탈비 우루과이 외교장관은 전날 우루과이가 남미국가연합에서 탈퇴한다고 밝혔다. 그는 "남미국가연합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며 "본부도, 사무총장도 없고 대부분의 국가가 탈퇴했다."고 말했다.

이달 초 15년 만에 우과 정권이 들어선 우루과이는 대신 미주상호원조조약(TIAR·리우조약)에 다시 가입한다고 밝혔다.

TIAR는 미국과 중남미 국가들이 1947년 체결한 조약으로, 우루과이는 좌파 정권 시절인 지난해 9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 제재에 유일하게 반대한 뒤 탈퇴한 바 있다.

남미국가연합은 지난 2008년 5월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남미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창설됐으며 미국의 영향을 줄이고 남미 통합을 지향한다는 목표를 갖고 정기적으로 정상회의와 장관회의 등을 열며 내부 결속력을 다지려 했다.

그러나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등 회원국에 속속 우과 정권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2018년 4월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등 우과 6개 회원국은 남미국가연합이 방향성을 잃었다며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히고 속속 탈퇴 절차를 밟았다.

이제 남은 회원국은 베네수엘라, 가이아나, 수리남 정도이다. 본부 건물도 에콰도르에 반환됐고, 사무총장도 2017년부터 공석이며, 회의가 열리지 않은 지도도 참됐다. 공식적으로 해산을 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이다.

일본 한 대학, 한국인에 면접 0점 필기 1등도 불합격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친구가 이사장으로 있는 일본의 한 사립대학이 한국인 입시 응시자들을 면접시험에서 전원 0점 처리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이 중 한 명은 필기시험에서 전체 1등을 하고도 면접점수 때문에 불합격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12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오카야마이과대학 수의학부(에히메현 이마바리시)가 지난해 입시에서 한국인 수험생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0점을 준 사실을 이달 초 처음 폭로했던 주간지 주간문춘은 11일 "불합격된 한국인 수험생 중 한 명은 필기시험에서 최고 성적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면접에서 0점을 받는 바람에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추가로 보도했다.

특히 1등을 포함해 필기시험 상위 20위 이내에 든 한국인은 5명이나 됐다고 주간문춘은 전했다.

오카야마이과대학은 지난해 11월 16일 치러진 수의학부 '추천입시' 전형 면접시험에서 전체 지원자 69명 중 한국인 7명에 대해 0점을 줬다. 그 결과 한국인 수험생은 한 명도 최종 합격 24명에 들지 못했다.

앞서 오카야마이과대학은 한국인 불이익 의혹에 대해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문부과학성에 "한국인 수험생 7명에게 면접에서 0점을 준 것은 맞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한국인들이 모두 일본어 회화능력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라며 민족차별 의혹을 부정했다.

또 "추천입시A 전형에서 탈락한 수험생을 포함해 일반입시 전형 등에서는 한국인이 4명 합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주간문춘에 부정입시 사실을 제보한 학내 관계자는 "면접 없이 필기만으로 선발하는 일반입시에는 대학 측이 자의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의도적 차별이 아니라는 대학 측 주장을 반박했다.

가나 세무 & 보험

GANA TAX & INSURANCE

세금과 보험을 함께 도와드립니다
보험고객에게는 세금수수료를 50% 할인해 드립니다
65세이상 고객의 세금보고를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사업소득 제외)

세금보고 / 법인설립 / Sales Tax
 세무감사대행 / 회계업무 / Payroll Service
 오바마 케어 보험 / 메디케어 보험 / 기타 보험

beachgana@gmail.com

김선광 (Kayson Kim) (O) 714.827.0707 3008A W. Lincoln Ave
40년 실무경험의 공인세무사 (C) 714.588.3355 Anaheim, CA 92801